

박대통령 “승객버린 선장, 살인과도 같은 행위”

수석비서관 회의 “지위고하 막론 책임자 엄벌” 눈치보는 공무원 은 퇴출...부분 개각 가능성 시사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신설 검토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 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

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을 예고한 것이어서 그 범위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장·차관에 대한 경질로 부분 개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까지 했다. 이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응당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 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철저한 규명 및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약속하면서 그 바닥을 드러낸 정부 재난대응 능력의 철저한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기강과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 등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를 강력한 어조로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희생자와 가족에게는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없는 많은 분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49재와 겹치고 선거 분위기 침몰 6·4지방선거 연기론 힘 얻나

선거법 개정 등 사실상 힘들듯

세월호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 선거권 일각에서 ‘지방선거 연기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사설상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실종자 구조 등 사고 수습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4 지방선거일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존 사망자들의 생사조차 알 수없는 많은 분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7월30일 재보궐선거와 함께 실시하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 아닌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시기 변경 단서 조항을 넣어 개정하면 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연기 조항을 갖는 선거를 미루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96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애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선거를 연기할 경우 현직 단체장들의 임기(6월30일)가 연장되는 등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과거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해안 산불’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천안 합침물 사건’이 벌어졌지만, 선거는 그대로 진행됐다는 점도 ‘지방선거 연기’는 사실상 무리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선거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로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수습이 늦어질 경우 국민정서상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힘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전전공공하는 등 선거일 투표율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 연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너무나 큰 대형사고인 데다 사고발생부터 재난 대처까지 너무나 국민들을 분노케 하면서 ‘이 관공에 무슨 선거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선거 연기가 이어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침통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와 관련, 기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무대책에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중한 자세로 정부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을 통해 세월호 책임론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삼불리 정부에 각을 세웠다가는 세월호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1일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처

여 ‘자성론’속 정부 대응 질타 야 ‘신중론’속 人災·官災 비난

능력에 질타를 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로 정비하는 확실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총체적 안전 불감증과 사고 초기에 안일한 대응의 문제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면서 “허술한 재

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중 기조’를 유지하며 발언 수위 조절에 나섰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속한 구조작업에 방점을 찍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gnju.co.kr

전병환 원내대표도 “할말을 참고 있다”면서 “더이상 실수가 이어져선 안된다”며 완곡한 어조로 정부의 세심한 대처를 주문했다.

전날 밤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도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이번 참사에 대한 강력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연석회의에서 당국의 초동 대처의 문제점들을 열거하며 “이번 사건은 인재이자 관재(官災)”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공무원 불신 낙인”

중국 환구시보 지적

‘세월호’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와 공무원들이 한국 국민에게 불신이란 낙인이 찍히는 계기가 됐다고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1일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과 독일, 일본 등 언론 매체를 인용하면서 자체 분석을 가미한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언론의 사실을 인용, “세월호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은 이미 국민에게서 불신의 낙인이 찍혔다”고 밝혔다.

이러 안전행정부 대책본부와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가 제각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허위문자와 악성 댓글이 판을 치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국 사회

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다”고도 지적했다.

신문은 세월호 사건의 구조수색 작업이 진행된 지 6일째를 맞고 있다면서 “구조가 계속되면서 희생자들의 시신만 나올 뿐 한 명의 생환자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실종자 가족의 절망은 분노로 변했고 한국 사회는 계속 일어나는 희생자 숫자에 정신적으로 붕괴 상태에 달하고 있다”면서 “언론 매체들은 한국이 3류국가가가 아닌지 반성하고 있으며 비극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18일 영문판 사실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가 한국의 현대화 수준을 묻는 시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신축원룸매매 (전대1분)

① 전대상대1분(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톨21개 (1층 상가2칸, 4층 고급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정남향
월수익 880만(1년 1억500만)
매가 12억(보1억 용3억) 수익율 12%

② 전대정문, 후문1분(신축4층 톨12개)★
1층 점포, 4층 고급주택, 월수익 450만 매가 6억7천(보3천, 용1억2천)

③ 나주 이창동 원룸★
룸 18개 월 550만 매가 4억3천(용1억2) 수익율 13%

상가매매 (수익형 노후보장)

④ 수원지구3층(85평)매가13억5천★
모아엘가 APT입구 최고위치(보3천 월190만 용2억5천)

⑤ 첨단지구상가매매2층(62평)매가1억7천★
오션스파 입대가 보증금2천 월90만 사무실 시설 완비된주인직접 사용자

★쌍촌역 오피스텔 매매(원룸형, 투룸형은천원2분)★
원룸시설완비 울리모텔링 전자제품 신규교체
• 원룸형(11평) 매가 3천3백(보 200, 월 27, 용1000)
• 투룸형(15평) 매가 4천3백(보 300, 월 36, 용1500)
• 투룸입대(15평) 보증금 3백 월 30만(월수익인주거 울리모텔링 방룸)
★세채매입시 총매가 1억1천(월수익4000원) 불투자 6000원(월수익 1000원) 수익율15%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나주혁신 토지매매

나주혁신중심도로 빛가람로코너

근생지역 D-9블럭 코너 273평
매가 27억(용 16억)
부영 APT 정문 맞은편 코너 최고위치, 국립전파연구원
신축5층가능(1층만 건축시 월수익 1350만원 1년 수익 1억6천 수익율 13%

나주시산포면등수리 생산관리지역

(도로접 주택신축)는 945평 매가 39억천 (1년 500만 수익발생)

화정동 상가 토지 매매

5천세대 아파트 주변 한양아파트 코너 433㎡ (㎡당 150만원) 신축5층가능

010-6832-9700
062)952-558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쌍촌역 인근도시원 대지 272㎡(87)건물 493㎡(149) 수익률 보증금 3천에 월 580선 현금생활에 적합 5억 2천
- 쌍촌동 치평중학교 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3천 월500선 수익 5억2천
- 700만원에 이전해갈 생활주택부지 영암읍 도로접 1380㎡(417) 대출 1억2천 원룸 적합 700만원
- 대전시 건물 162㎡ 신고 18억선 매도 8억 8천
- 동구 대지 542㎡ (164)건물 396㎡(1200)18억 2천
- 동구 음식점 대지 1924(582)건물 3287㎡(994)요양병원 등도 적합 감정 47억 3천 매도 27억 3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접 관리지역 8553㎡(2587)평탄 한평 공장,창고등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500만원
- 주월동 소방도로접 3층주거지 611㎡(185)차량진입,사할 등적합 공시지가에 매도 2억 2천
- 시내 목욕탕과 여관등 대지 765㎡(231)건물 2529㎡(765) 감정 22억 대출없음 매도 13억
- 쌍촌역 4거리 나대지 377㎡(111)7억천
- 동구 대지 923㎡(280)건물 7569㎡(2296)요양시설 병원 등적합 감정 60억 은행 26억 매도 44억

임대, 투자, 교환

- 쌍촌동 원룸 건물 대지 222㎡(67) 건평 330㎡(100) 운전역 1분거리 보증금 2천선 월 300선수익 매도가 3억 6천
-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벽파항에서 약 2km 산 16860㎡(5100)사할,별장부지 등 투자에 적합 2700만원
- 쌍촌동 명지아파트부지 5층 원룸건물 대지 320㎡ 건물 479㎡ 보증금 1억선 월 600선수익 7억 천
- 신안동 상업지 333㎡원룸 등 적합 3억 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 최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랜차이즈 입점)
- ▶ 북구 신용동 유치원 건물 매매 23억
- ▶ 남구 진월동 예식장건물 매매 65억(병원, 요양병원, 교회 적합)
- ▶ 풍양동 한의원 임대 보증금 3천 월 100만
- ▶ 봉선동 쌍용사거리 부근 미용실 임대 보7천 월315만

대지/전답

-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29,800㎡ 매매39억
- ▶ 남구 주월동 병원최적합 부지 2,290㎡ 매매54억
- ▶ 담양군 월산면 집주지 29,800㎡ 매매 16억
-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 전 17,200㎡ 매매 5억 2천
-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전.답 8,600㎡ 2억9천

기타

- ▶ 세히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주소 매 8억(용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 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 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됨,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접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